

#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착공, 항만 운영 안정성 높인다

- 군산항,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10년치 수용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4월 24일(금) 착공한다고 밝혔다.

금강 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구간과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하다.

현재 발생하는 준설토는 인근의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이곳들도 2028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국비 5,477억 원을 투입하여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투기장은 준설토 약 4,459만<sup>3</sup>m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년간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준공에 앞서 일부 구간을 2027년 말까지 먼저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차질없이 조성하여 군산항과 장항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국 항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개발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51-773-5930)
		담당자	사무관	이귀섭 (051-773-5937)
담당 부서	군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책임자	과 장	전재형 (063-441-2270)
		담당자	주무관	구원주 (063-441-2271)

## 참 고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존 투기장 용량 한계에 따라 군장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규 투기장 확보 필요
- (사업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측호안(비응도동3) 전면 해상
- (사업기간/총사업비) '23년 ~ '30년(공사기간 48개월) / 5,477억원\*
  - \* 1공구 : 2,766억원(공사비 : 2,680억원) / 2공구 : 2,711억원(공사비 : 2,627억원)
- (사업내용) 호안 4.17km, 가호안 1.16km(수토용량 4,459만m<sup>3</sup>) 등
  - \* 1공구 : 호안 2.05km, 가호안 1.16km(2,060만m<sup>3</sup>) / 2공구 : 호안 2.12km(2,399만m<sup>3</sup>)

### □ 추진경위 및 계획

- '20.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고시
- '22. 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통과(B/C 1.75, AHP 0.665)
- '24.12. : 기초조사용역
- '24.12. :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공사 발주(T/K)
- '25.10. : 기본설계도서 심의(국토교통부)
- '25.12.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조달청)
  - \* (1공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 (2공구) 동부건설(주) 컨소시엄
- '26. 3. : 실시설계 심의
- '26. 4. : 낙찰자 선정 및 공사 착공

###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